

15개월 앞 총선... 달아오르는 지방정가

민주당 여수갑·여수을·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 경쟁 치열
강기정 떠난 광주북갑 접수 누가...손금주 등 입당심사도 변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개월여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야당 일부 의원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복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강기정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역정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

9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밟고 있고, 민주당평화 김경진(광주 북구 갑) 의원도 민주당 입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아울러 공석인 전남지역 여수갑과 여수을,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3곳의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가 이날부터 시작됨에 따라 내년 총선에 나설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손금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입당이 보류됐지만, 오는 13일 다시 심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구인 나주·화순 정가에서는 손 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지만, 손 의원이 입당할 경우 현재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전 의원과 한판 승부가 예상돼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강기정 전 의원의 광주 북구 갑 지역구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3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 때문이다. 총선이 1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에 입성함에 따라 시간적으로나 물리

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후임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총선에는 강 수석과 정치직 동지이자 친분이 강한 조오섭 전 광주시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조 전 시의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으로 활동하며 한전대학 설립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맡고 있다.

반면, 광주 북구갑 현역인 민평당 김경진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탈당설이 불거졌고, 지금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만큼 김 의원의 민주당행 여부도 향후 총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남지역 3곳에 대한 지역위원장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여수갑과 여수을, 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 공모를 한다. 여수갑에는 김유하 전 시의원, 김점유

전 총선 후보, 이상우 여수시의원, 주철현 전 여수시장, 한정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한현석 기업인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수을 지역구는 권세도 전 여수시장 후보,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 박완규 민주당 부대변인, 정기명 변호사 등의 경쟁 가능성이 점쳐진다.

광양·구례·곡성 지역구는 김재휴 전 보성군 부군수, 김중대 민주당 지역운영위원장, 박근표 언론인, 서동용 변호사, 서종식 변호사, 안준노 노동운동가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야당과 무소속 일부 의원들의 복당 여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18석인 국회의원은 정당별로 민주당평화당 9석, 바른미래당 4석, 민주당 3석, 무소속 2석이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여야 대치 격화

靑 2기 참모진 인사 놓고 야 3당 “코드인사 벗어나야”

여야가 9일 정점 현안들을 놓고 대립을 거듭하며 연초 정국 교착이 깊어지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둘러싼 논란에 더해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가 새로운 공방 소재로 대두되면서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당평화당 등 야 3당은 ‘신재민 사건’과 전날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고리로 대야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의 ‘정쟁 연대’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우선 여야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시대착오적 코드 인사’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국정쇄신의 의지를 담은 ‘책임자 인사’라고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견책·문책 인사가 돼야 하는데 면죄부 인사가 돼 야당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화상 국회의장이 전날 토론회에서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한다’고 정부에 쓴소리했다. 여당 소속 국회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나”라며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캡틴 인사만 데려다 놓고 모든 국민

과 함께 잘사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김태우·신재민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여전했다. 야 3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신재민 사건’ 청문회를 여는 것에 의기투합한 데 이어 김태우 사건 특검에도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정쟁만을 위한 야당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 특보 경력을 문제 삼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조 후보자에게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고, 정치 편향성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면 될 사안이라며 맞섰다. 결국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전행발안만 이어진 끝에 개의 30여분 만에 종료하는 파행을 겪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 등 참석자들이 ‘자치와 분권으로 지역 혁신’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자치·분권으로 지역 혁신”

참좋은지방정부위 발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을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김두관 상임위원장, 최문순 공동위원장, 황명선 공동위원장,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과 이경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회

의원 등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의 5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재정법은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당내 지방정부 및 의회 구성원 정치직 위상 강화 ▲남북교류협력시대 민족 통일성 회복 노력 등을 결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동시간 단축 보완·최저임금 제도 개선”

이낙연 총리, 중기중앙회 신년인사회 참석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노동시간 단축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책의 방향은 자기되, 그 이행은 유연하게 해가며 성과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많다. 세계적으로는 주요국 경제 하강의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 (경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이 산업현장을 더 자주 찾고 여러분과 깊게 소통하겠다”고 언급하며 올해 경제 정책 방향으로 혁신성장, 규제혁신, 동반성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제조업 혁신전략 후속조치 이행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투입 ▲규제혁신 4법 본격 시행 ▲불공정 거래 근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장치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손금주·이용호 입·복당 심사 보류

당내 의견 조율키로...13일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심사를 했으나 당내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또 여수시장(권오봉)·광양시장(정현복)·장흥군수(정종순)·신안군수(박우량)에 대한 복당 여부도 결정을 유보했다.

당원자격심사위는 이들의 입·복당에 대해 의견을 추가로 들어본 뒤 오는 13일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당원자격심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두 의원의 입당 여부를) 집중적으로 토론했지만, 소명서와 시도당 의견서 외에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은 이어 “여수시장·광양시장·장흥군수·신안군수 등 자치단체장 내 분

당사유와 시도당 의견을 들었다”며 “두 분의 현역 의원과 내 분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최종결정은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탈당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의 복당 심사는 당규에 따라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손 의원의 입당 심사는 14일 이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동 입당하게 된다.

소 부위원장은 “심사기간이 손 의원은 14일, 이 의원은 한 달로 이 의원은 시간이 좀 더 남았지만 두 사안 모두 현역 의원에 관계된 일이라 한 번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입당을 먼저 결정할 후 기간을 두고 복당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많은 의문이 생길 것 같아서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당원자격심사위는 71건의 입·복당 회람 건 가운데 유보 6건을 제외한 65건에 대한 결론을 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